

2018년 2월 7일

KIWOOM DAILY ISSU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Commodity Analyst 안예하 02) 3787-5157 yhahn@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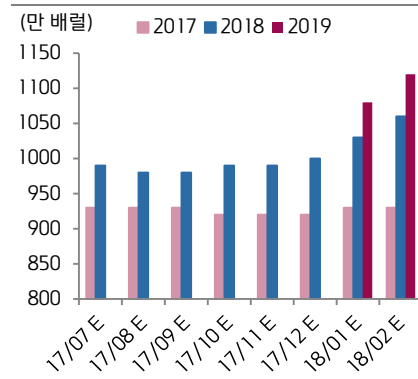
미 에너지정보청, 미국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

미국 에너지정보청, 2월 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 발표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2월 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STEO)를 발표. EIA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원유 시장 강세 요인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원유 재고 감소에 있다고 진단. 또한 OPEC 모니터링 회의에서 2018년 이후에도 감산 합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주장하면서, 시장의 과잉 공급 우려를 완화시킨 점도 한 가지 요인이었음. 뿐만 아니라, IMF에서 글로벌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듯, 수요 증가 기대도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인임.

EIA는 미국의 2018년과 2019년 원유 생산량 전망치를 발표. 2018년 원유 생산량은 일간 1,059만 배럴, 2019년은 1,118만 배럴일 것으로 전망. 이는 지난 1월 전망치(각각 1,030만 배럴, 1,080만 배럴)에서 각각 2.8%, 3.5% 상향 조정한 것. 이를 감안해 미국의 원유 재고는 2017년과 달리 2018년과 2019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미국 원유 생산량 전망치 추이



자료: EIA, 키움증권

공급 요인보다는 수요 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EIA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상향 조정. EIA뿐만 아니라, OPEC과 IEA도 미국의 증산을 전망하고 있음. 최근 WTI가 배럴당 60달러 선을 상회하면서 미국이 그간 완공하지 못한 원유 시추공을 완공시킨 후 생산량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러한 미국의 증산은 국제유가의 상단을 제한시킬 것으로 예상.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 달러 약세, 위험자산 선호, 수요 증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최근 들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2018년 상반기 중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는 미국의 증산이라는 공급 요인보다는 수요 요인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국제유가는 미국의 증산으로 상승 탄력은 저하될 수 있으나, 현 수준에서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임.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